

## 데스크시각

정 후 식



가슴 박한 낭보였다. 2007년 11월 27일 새벽 프랑스 파리의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날아든 '2012년 엑스포 개최지 여수 확정' 소식은 지금 돌이켜봐도 감격적이다. 인구 30만만의 남해안 소도시가 전통적 국제도시인 모로코의 탕헤르를 눌렀다는 점에 더욱 그랬다.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숨죽이며 지켜보던 여수 시민들은 '여수, 프레!'가 발표되는 순간 일제히 환호하며 서로 열싸안았다. 여기엔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 전남 개도 이래 최대 행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낙후어 허덕여 온 전남이 지난 1996년 개도(開道) 100년을 맞아 천혜의 해양자원을 밑거름삼아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내놓은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제사회의 화두는 '신해양시대'였다.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21세기 모든 나라의 운명은 해양력(Sea Power)에 달려 있다"고 설했다. 강대국들은 저

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해양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육지 자원의 고갈은 그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엑스포 전남 유치"를 위한 이론적 자양분은 전남해양융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이견철 현 전남발전연구원장과 안원태 국토

## 여수엑스포 '집안 잔치' 막으려면

환경연구원장 등이 제공했다. 지역 언론도 힘을 보탤다. 광주일보는 1997년 5월부터 4개월여 동안 15회에 걸쳐 '해양엑스포 전남에서'라는 기획시리즈를 보도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주제로 한 지역 최초의 장기 연재로, 엑스포를 전남 발전을 위한 의제로 설정하려는 시도였다.

박람회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으로 정해졌다. 자원의 보고인 해양 개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까지 지평을 넓힌 것이다. 이는 두 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개최권을 확보하게 된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개최지 확정 이후 4년 반 만인 오는 12일 드디어 여수세계박람회가 공식 개막해 9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계획 수립부터 따지면 준비하는데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뜻뜻미지근했던 정부 지원이나 호연성 전 여수시장의 구속 등 우려 곡절도 많았다.

개막이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문제점은 골방에 불거지고 있다. 마지막 예행연습이 진행된 지난 5일 찾아간 박람회 장내 주요 전시관이나 해상무대 '빅오(Big-O)', 길이 218m의 디지털갤러리 등 외관은 나무랄 데 없이 화려했다.

반면 운영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았다. 예약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주요 전시관은 수용능력이 크게 떨어졌고, 셔틀버스와 그늘막도 턱없이 부족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람객들은 땀방아래 몇 시간씩 대기하기 일쑤였다.

매일 10만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체증과 주차난, '박람회 특수'를 노린 바가지 상흔도 걱정거리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느 축제를 가나 이 정도 혼잡과 줄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명품 박람회는 기대할 수 없다.

남은 기간 어린이와 노약자 배려를 포함한 예약제 및 운영 개선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 대전엑스포 반면교사 삼아야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여수엑스포가 지역발전이나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일회성 축제에 끝나는 사태다. 현대경제연구원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나 스페인 사라고사, 중국 상하이 엑스포가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는 보탬이 됐지만 주민소득이나 지역발전, 경제성장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했지만 '집안잔치'에 그치면서 박람회장 사후활용에도 실패한 대전엑스포 또한 반면교사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전남 개도 이래 최대 규모의 행사로, 다도해와 해안선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다. 눈앞의 흥행과 이익에 급급하기보다 관람객들에게 훈훈한 남도 인심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찾는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전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지역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엑스포를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 신해양시대 전남의 새 미래를 열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겠다. <정주부장>who@kwangju.co.kr

## 시 설

### 무안공항 경유 호남고속철 공사 앞당겨야

호남고속철(KTX) 광주~목포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선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무안공항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추진하되, 신설 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기존선을 활용한다"는 '광주~목포 노선 변경안'을 전남도에 보내왔다. 새 노선은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어 광주~무안공항 11분, 광주~목포를 16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당초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하되 광주~목포는 기존선의 고속화를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도는 "기존선은 최고 시속 230km에 불과한데다 나주 경유로 인해 광주~무안공항 16분, 광주~목포 23분이 소요돼 고속철의 기능이 떨어진다"며 변경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탤다. 국토부는 결국 지역민의 항의와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명분에 밀려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 철도산업위원회 의결과정이 남아있고, 통과되더라도 최종안을 고시해야 함은 물론 재용역-기본계획 수립-실시계획 등의 과정이 수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계획된 2017년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도가 제반 절차를 앞당겨줄 것을 건의한 것도 이런 이유다.

고속철의 무안공항 연계는 지역균형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국은 무엇보다 모든 절차를 신속 진행해 완공시기 앞당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무안공항 경유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마당에 또 늘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 상처만 남긴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 무산

해남군이 추진한 화력발전소 유치가 해남군의회 제정으로 무산됐다. 해남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한 목포와 진도·신안지역 주민들과 6개월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던 화력발전소 유치가 상처만 남긴 채 물 건너간 것이다.

해남군의회는 7일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화력발전소 유치 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한 뒤 부결시켰다. 동의안은 비밀투표로 진행했으며, 전체 의원 11명 중 반대 5명, 찬성·무효 각 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회의 결정은 바철환 군수가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과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은 동의안이란 점에서 주민의 관심을 모았다.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는 그동안 해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인근 진도와 목포, 신안지역 주민들까지 반대에 가세해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박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소환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검토됐었다.

이들은 화력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의 청정 이미지 실추와 함께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생존권 위협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화력발전소 유치 무산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단체장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갈등의 생채기를 남기고 지역의 역량 손실이라는 후유증을 불렀다는 점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발전소 유치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네 번씩이나 좌절된 사실을 겸허히 새겨 향후 또다른 유치를 범행선 안 된다.

이제 해남군은 유치 찬·반으로 분열된 지역민심을 속히 추스려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 결집에 나서야 한다. 시민사 회단체와 지역민들도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공존의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으로, 화력발전소 유치를 놓고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고흥군 역시 해남군의 유치 무산을 반면교사로 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 병 우

매주 금요일 이른 아침이면 광주 경중에서 추최하는 금요일 조찬 포럼이 열린다. 전국 조찬 포럼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 열기가 높아 강사들이 감동하고 가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 유명 강사들은 거의 한번 정도를 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조찬 포럼에 약 7년간 참가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다. 포럼 내용도 좋았고 조찬 학습의 뿌듯함도 많다. 그러다가 여기에 오는 명강사들이 일반 강사와 무엇이 다른 지에도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하기에 이렇게 전문적인 명강사가 됐을까? 이

### 유명 강사를 통해 배우는 네가지

들 명강사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많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 저서가 있는 경우다. 특히 베스트셀러 작가의 직접 강의는 큰 인기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책을 내게 되면 그 책이 대단한 PR을 해준다. 거기다 강연까지 잘하면 금상첨화다. 어느 강사는 책을 낸 후 2년간은 스케줄이 꽉 잡혀져 있다고 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책을 출판한 후 유명인이 된 경우가 아주 많다.

'비서처럼 하라'의 조관일 씨나 '이기는 습관'의 전옥표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의 경험을 잘 살려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낸 경우이다. 이론이 아닌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청중의 공감도 높았다. 그러니까 명강사가 되려면 먼저 저서를 내는 것이 좋다.

둘째, 권위 있는 대가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의존하는 경우다. 이들은 대가들을 만

나서 큰 감명을 받았거나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켈 블랜차드나 폴 마이어 같은 사람들을 만난 얘기가. 그리고 그들의 이론이나 지침에 자신의 얘기를 보태서 상품을 만든다.

대학교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전공 이론에다 현실적인 예를 적절히 가미해서 상품을 만든다. 경제, 경영,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가능하다. 이 또한 이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론과 현실을 잘 엮으면 대박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셋째, 유머나 동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이다. 요즘 유머 강사들이 뜨고 있다. 그들이 하는 강의 내용을 적으려고 하면 별거 없다. 하지만 한 시간 동안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새 끝난다. 청중과 함께하는 동자는

매우 중요하다. 박사치기, 옆 사람과 인사하기, 따라하기, 외쳐보기 등... 이럴 때는 분위기를 잘 잡아야한다. 잘 따라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지기도 한다. 광주 경중 조찬 포럼 관중의 듣는 태도는 훌륭하다.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유머 강사들에게 아주 좋은 공연장이다.

넷째, 이 세 가지 조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개인 스토리다. 아무리 위대한 이론이라도 강사의 개인 스토리 없이 말하면 감흥이 없다. 공감이 없다. 강사의 글썽 있는 개인스토리는 공감을 일으킨다. 특히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얘기하면 청중은 귀족은 듯 고요하다. 거의 물입 수준이다.

강사에게는 진정성이 느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성이 있는 개인스토리는 최고의 이야기 같이다.

<광주대학교 자율 융복합전공학부 교수>

은펜칼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칼림'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 기고



박 삼 서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기권은 국민의 수지"

"조선의 인민들! 이제 곧 당신네의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드디어 북한도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1948년 5·10 총선거에 참여하지는 슬로건인데, 요즘의 슬로건에 비하면 문구가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이행하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5·10 총선거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각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에 의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권재민의 원리를 구현한 최초의 선거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랜 기간 투쟁에 의해 민주주의를 일찍부터 발전시켜 왔다는 미국의 경우 여성에 이어 흑인이 선거권을 획득한 것이 놀랍게도 1960년대 중반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여러 서방국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비해 전제 군주제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투표에서의 불평등 철폐를 일거(一擧)에 달성함으로써 특정 연령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의 완전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진 것은 우리나라의 헌정사적인 의미로 볼 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5·10 총선거를 기리고 국민주권의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올해 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

권자 주간'으로 제정함으로써 우리 선거권 위위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유권자의 날 기념식은 물론 다채로운 행사를 차근차근 준비·진행해가고 있다. 이러한 기념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스웨덴 등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도 정치토론·공모전·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행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많은 국민이 정치권에 대해 비난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어떤 이는 어떤 후보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선거일이 가까워야야 나에게 물어본다. "누구를 뽑아야하?"라고.

꼭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높고 사주하고 싶다. 하지만,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해 줄,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

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목적 아니었던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난 후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권리 위에 잡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법언(法諺)이다.

이는 법에만 적용되는 구절은 아닌 듯하다. 정치인은 국민을 가장 무서워한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인도 선거에 무관심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기억하자! 우리의 선배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후배들에게 어떤 국기를 물려주어야 할 것인지.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은 국민이 우리나라의 참 주인공임을 선포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다. 모두 함께 축제를 즐기며 유권자(有權者)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의 4018만 6172명의 유권자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전남도선관위 상임위원>

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운영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음이 많다고 한다.

이처럼 신선권이 농산물 생산업체가 폐수 배출 규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는 공장외의 임지 때문이다. 하지만 농산물은 물로 세척하는 생산 과정의 특성상 신선권이 농산물 생산공장이 사용하는 물은 다른 어떤 생산공장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다. 품목이나 상품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산 전 과정에서 최대 3차례까지 물 세척이 반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교급식 수요 등으로 신선권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폐수 규정 때문에 생산라인 확대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특성을 감안해 조속히 규정을 잡아 줘야 할 것이다. <▲비미진·목포시 서산동>

### 폐수 규정에 신선 농산물 가공공장 확충 못해서야

요즘은 간편한 게 대세다. 대형 마트에 가면 조그만 투명 비닐 팩에 방울토마토, 감귤, 포도 등 과일을 소포장으로 담아 언제든 지 가볍게 먹을 수 있게 한 제품들이 잘 팔린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제도와 법규인 것 같다. 이런 신선권이 농산물은 그 특성상 생산업체에서 원료인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가 있는

근처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인데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 배출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결과 이런 폐수 규정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하루 폐수 사용량이 법으로 규제돼 있어 사업량을 폐수 규정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폐수 규정 때문에 공장을 세 개로 나눠서 별개의 법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無 等 鼓

"적의 사정(事情)은 귀신에게서 찾아낼 수 없고, 유사한 일에서 유추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에게서 찾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적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장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주의 보좌(輔佐)도 될 수 없으며, 이기는 장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간첩이란 것은 신기한 기물(紀律)이니 군주의 보배입니다."

1491년 성종 당시 평안도의 군사 지휘관이었던 이극균이 여진족의 동향을 알려 준 간첩에게 포상을 요청하면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이야기다. 승리를 위해서는 간첩이 중요하며, 포상을 후하게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손자병법을 인용한 것이다.

손자병법의 마지막 부분인 용간(用間)편에는 모두 5가지 종류의 간첩이 등장한다. 첫째 인간(因間)은 적의 주인을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 내간(內間)은 적의 권리를 매수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셋째 반간(反間)은 적의 간첩을 역이용하는 이중간첩, 그리고 넷째 사간(死間)은 우리 첩자에게 거짓정보를 주

어 적에게 제공하는 것. 마지막으로 생간(生間)은 적을 탐탐한 후 돌아와 적정을 보고하는 것이다.

손자는 용간편을 마무리하면서 "간첩활동의 성과야말로 전쟁의 가장 중요 요소로서, 전권이 그 활동을 믿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첩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이래 살인의 지침서로 사용되어 온 손자병법에서도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통합된 현대에도 그 중요성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국가간 무역전쟁이 치열한 현대에는 간첩 대신 산업스피아가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국정원은 지난 5년간 산업스피아에 의한 피해가 400조 원

을 웃돈다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중요 기술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요즘이라면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다. <충행기 정치부 처장 replane@kwangju.co.kr>

### 산업스파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慶完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명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대표 FAX 222-4918>	2200-649	사진부	2200-693	<F A X 222-9500>	<F A X 222-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대표 FAX 222-4267>	2200-685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